

디지털 시대의 전문 기자

KCRC 회원들은 모두가 전문기자입니다.
전문가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보를 정리하며,
기자는 기사로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며, 좋은 기사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긴 안목으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전문기자의 기본입니다.

Information Technology가 세계 산업을 이끌어 가면서 산업의 진보가 가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최신의 기술은 내일이면 사장되는 기술로 전락하기도 하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축전을 통해 인간은 기술적 진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 수혜자중의 하나가 바로 기자들이 아닐까 합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에 익숙지 않았던 기자들었지만 지금은 노트북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좀더 작고 휴대가 간편한 팜탑이나 PDA가 취재도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보 전달의 매체도 종이 인쇄를 통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인터랙티브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자들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풍부한 정보들로 인해 더욱더 편리하게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기술의 진보덕에 기자들은 더 많이 바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켜면 화면 가득히 나타나는 이메일에서부터 자주 가는 사이트 한두 곳만 가도 밤새 새로운 정보가 가득해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기자들의 문화도 차츰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자생활이 주는 경험과 철학보다는 반짝이는 기획력과 인맥은 눈치 빠른 기업의 사냥감(?)이 되기도 하고, 매체의 변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생기는 다양한 매체들 덕분에 장래의 목표(?)를 쉽게 바꾸는 기자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다양한 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모든 생활에 변화를 가속화시켰지만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대중화된 기술의



이 양 선

한국컴퓨터기자클럽 회장
 일간 프로그램세계 편집주간

기자에는 충실한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자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은 사명감을 뼈에 새기고 자부심을 먹고 삽니다. 기자의 가장 큰 목표는 특종이며, '전문기자 ***'라는 칭호는 세계적인 그룹의 CEO 이름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기자는 역사의 증인이자 수레바퀴입니다. 기자는 독자들을 위한 정보의 전달자이자, 역사의 창조에 지시대 역할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기자의 기본은 독자에게 알려야 할 사건이나 정보를 진실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 시사비비를 가려 독자들이 진실을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의 요구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연구하고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위해 취재원을 찾아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KCRC 회원들은 모두가 전문기자입니다. 전문가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보를 정리하며, 기자는 기사로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며, 좋은 기사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긴 안목으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전문기자의 기본인 것입니다. 기자가 타고난다는 말은 남보다 월급을 더 받아서가 아니라 취재 현장이 좋아서, 자신이 쓴 기사가 활자화되는 그 자체가 좋아서, 비록 적은 독자일지언정 자신이 쓴 기사가 그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 기자들을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잇는 IT 산업의 바른 증인이자 디지털 시대를 직시하고 리드하는 전문기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KCRC 인들을 기대합니다. **KCRC**